태평양 횡단 특급을 읽고.

얼마전 공각기공대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다. 일본 SF 애니메이션을 원작으로 한 영화로 인체의 일부분을 로봇으로 변형하고, 길거리에는 여러 종류의 로봇들이 돌아다니는 등 기술이 고도로 발전된 미래를 배경으로 진행되는 영화이다. 기술의 발전으로 화려한 도시의 네온사인 불빛과는 대비된 회색빛깔의 건물들은 볼 때 화려함으로 도시의 어둠을 숨기려는 거 같아 위화감이 들었다. 태평양 횡단 특급도 그러했다. 화려한 상상력으로 난해한 이야기를 숨기려는 듯하였다. 태평양 횡단 특급은 SF 단편 소설로, 다양한 상상력으로 이야기를 이끌어가지만, 화려한 색깔을 낸 작품이라기 보다 무채색의 느낌이 강한 작품이었다. 특히 사람의 목숨이 쉽게 없어지는 장면과, 죽음에도 슬퍼하지 않던 주변 사람들의 반응들은 나를 소름 끼치게 하였다.

인공지능을 가진 로봇부터, 전세계를 지배한 철도회사, 외계인, 타임머신 등 작품의 소재는 굉장히 다양했다. SF가 쏟아져 나오는 요즘, 태평양 횡단 특급의 소재들은 흔한 소재이지만, 그 소재로 다룬 이야기는 결코 흔한 이야기가 아니었다. 흔한 소재를 보고 내용을 예상하려 했던 나에게 태평양 횡단 특급의 이야기는 나에게 다소 충격을 주었다. 예를 들어 ‘스퀘어 댄스’ 라는 이야기속에는 흔한 외계인이라는 소재가 있지만 외계인이 나오지 않는다. 대신 외계인이 만들어 놓은 공간에서 인간들의 몸이 자기 멋대로 움직이며, 공간을 벗어나기 위해 몸부림치는 인간의 모습이 나온다. 또한 ‘끈’ 이라는 작품에서는 흔한 전생이라는 소재가 사용되지만 전생을 통해 모든 사람은 한 사람으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난해하고 흔하지 않은 이야기가 전개된다.

이뿐만 아니라, 기계가 만드는 세상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람을 죽이는 사람들, 자신의 예언이 맞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초능력으로 살인을 하는 아이 등 분명 태평양 횡단 특급의 이야기들은 낯설고 현실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와 같은 태평양 횡단 특급의 낯선 이야기들은 다른 모습으로 변하여 우리 주변에 존재하는 듯했다. ‘스퀘어 댄스’에서 사람들을 자유롭지 못하게 하던 것은 외계인의 장치였다. 그들은 그 장치로 인해 움직임이 자유롭지 못했다. 그럼 과연 외계인의 장치 없이 사는 우리들은 자유로울까? 우리들은 몸만 자유로울 뿐 사회의 구조속에 자유를 얽매여 살아가는 건 아닐까? 흔히 현실에서 사람들은 모두 다 다르게 살아왔으나, 취업을 준비할 때 모두가 똑같은 스펙을 가지려고 하고 모두가 똑같은 모습으로 준비한다. 우리 모두는 외계인의 장치와 같은 사회의 구조속에 맞춰 자유롭지 못하게 살아가고 있는게 아닐까?

공각기공대에서 발전된 기술들의 어두운 면을 숨기려 했던 화려한 도시의 모습처럼, 태평양 횡단 특급도 난해한 내용으로 무언가를 숨기는듯 해서 위화감을 떨칠 수 없었다. 그러나 태평양 횡단 특급에서 무언가를 숨기려 하는 모습들이 사실은 무언가를 더욱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닐까? 인간은 현실의 익숙함에 자신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지 못한다. 매일 똑같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어느새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사회의 꼭두각시처럼 살아가게 된다. 그러나 평소와 다른 것이 우리 삶에 개입한다면 우리는 멈추고 돌아보게 된다. 태평양 횡단 특급은 흔하지 않은 이야기로서 우리 삶에 개입했다. 그리고는 사회가 날 움직이는 삶에서 나를 멈추게 해주었고, 내가 무엇을 하고 싶어하는지에 대해 스스로 생각하게 해주었다.